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정읍시는 9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7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자로, 유기질비료가 공급되는 시기에 도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은 농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여러 시·군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질비료와 부속유기질비료이며, 유기질비료는 포대(20kg)당 1600원을, 부속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포대(20kg)당 1300~1.6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읍시는 지역 내 생산업체의 비료를 신청하면 포대(20kg)당 300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흡연·음주 예방 교육 실시

부안군은 8~10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6개소 76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강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음악과 조영, 재미있는 퍼포먼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된다.

청소년기의 흡연·음주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또 청소년기의 흡연·음주의 결과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신체·정신·사회적 제반 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도 초래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흡연·음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든 사회적인 측면에서든 감소되고 예방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

고창군, 정책포럼 '청년공감마당' 개최... 군민 등 100여명 참여

고창군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 '청년공감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군민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1부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의 회 임정호 의장이 청년들과 격의 없

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추진중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방향과 추진상황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발제에 따라 4명의 전문가가 발표한 주제(일자리, 주거, 복지, 참여)에 대해 질의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부에선 고창군 청년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청년들의 진솔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더 나은 청년정책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안된 의견들은 정책수요 파악 등 고창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립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박차'

신정교 재가설 완료... 도로확장·터널개설 내년 하반기 준공

내년부터는 가을철 전국 최고의 명소인 정읍 내장산을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는 내장산과 내장산리조트 방문객의 안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에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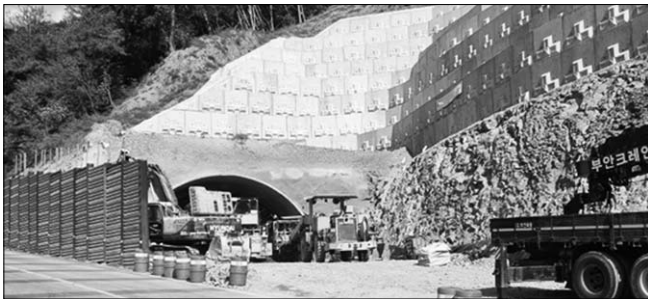
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국비 229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신정교 재가설(L=30m, B=22m), 신정동·용산동·생암동 일원 1.37km 도로 확장, 터널개설(L=295m, B=10m)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정교 재가설 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완료 했고, 도로확장과 터널개설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내장산 I에서 내장산과 내장산리조트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 관광객들의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교통사고 감소 등 시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내장산과 주변 관광지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가을철 전국 최고의 명소인 정읍 내장산을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을 행락철 맞아 정읍 시티투어 버스 '호응'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충남 전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은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해 정읍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맛을 즐겼다.

관광객들은 내장산국립공원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가을의 꽃인 절정의 단풍을 구경하면서 가을 정취에 흠뻑 취했다.

무성사원 방문 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으로 정읍의 역사, 관광지에



대한 심도있는 해설이 가미된 시티투어의 재미를 더했다. 또한 전국 유일의 쌍화차거리에서 관광으로 지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시

티투어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티투어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정읍시 홈페이지 문화관광(여행가이드)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이용요금은 성인 5000원, 군인·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용, 식비, 여행지보험료 등은 이용자 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정읍 시티투어 카페코리와 시청 관광과, 정읍역 종합관광안내센터 등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연간 대기오염물질 84kg 흡수... 낙우송 외 25종 2만8356주 식재

부안군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내 생활권 및 도시주변지역에 낙우송 외 25종의 수목 2만 8356주를 식재해 0.51ha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이번 도시숲은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해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으로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조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군은 내년까지 총 1ha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숲은 1ha당 연간 미세먼지 46kg

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168kg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경유차 27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군은 올해 도시숲 1개소(진서면), 학교숲 1개소(백산고등학교), 미세먼지 차단숲 1개소(제2농공단지)를 조성 완료했으며 가로수 2개 노선(순환남로, 신운천)을 조성하고 있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군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린 인프라를 확충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7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의 고용인정을 위해 '탄탄하고 풍요롭게 2023 고창군 일자리 페스티벌'을 열었다.

'풍요롭고 찬란하게 고창군 일자리 페스티벌' 성료

고창군이 7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탄탄하고 풍요롭게 2023 고창군 일자리 페스티벌'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기업 채용부스 17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채용설명관 5개 △일자리 유관기관 홍보부스 10개 △취업지원 부스 3개가 마련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박람회장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막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체 및 우수 근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일자리 페스티벌은 고창군로컬잡(JOB)센터가 주관하고, 고창군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라북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고창군 시니어클럽, 전북일자리센터, 전북식품산업일자리센터 등 정부 지자체,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고창군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 및 구직 컨설팅을 진행했다.

구직업체로는 참여디영농조합법인, (유)상하농원, 석정웰파라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매일유업(주)상하공장, 이엔지푸드(주), 리더스산업, 연경전자(주), 태경(주) 등 17개 기업이 참여했

고 청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노인 일자리 구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는 군민 500여 명이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에 나섰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각 기업체에서 인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유관기관에서도 이력서 작성과 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구직희망자는 현장에서 이력서 작성과 이력서용 사진촬영, 채용상담, 면접 진행 등 취업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다.

고창군로컬잡센터는 "고창군 관내 여러 기업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열게 됐다"며 "앞으로 고창군과 고창군로컬잡센터는 일자리 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열고 군민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많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만나고 소통한 결과,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가한 기업 및 구직자들과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